# 남구 '통일열차' 탑승객으로 꽉 찼다

### 현장·온라인 접수 180석 매진
### 6월 2차 출발, 탑승객 모집 중

오는 4월 광주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하는 통일열차의 전 좌석이 매진됐다.

남구는 22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많은 주민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상반기 첫 번째로 운행하는 통일열차 참가자 모집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오는 6월1일 출발 예정인 2차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4월13일 효천역발 첫 통일열차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탑승객 180명을 태우고 최북단 도라산역으로 향한다. 탑승객 180명은 지난 3월13~15일까지 진행한 현장 접수 및 지난 20일 실시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통일열차에 몸을 싣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통일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최북단 도라선역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현장 및 온라인 접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탑승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접수는 모집 정원인 80명을 초과해 총 111명이 몰렸다.

남구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탑승객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을 공개했으며, 모집 인원 80명을 선정했다. 지난 20일 진행한 온라인 접수는 당일 마감됐다.

모집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지난 17일 추첨에서 떨어진 어르신들을 포함해 일찌감치 탑승객 신청에 나선 주민들이 통일열차 탑승 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오는 6월1일 출발하는 두 번째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에도 주민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 정원은 180명으로,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서둘러 출발 채비를 마친 주민 70명이 통일열차 탑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 2차례와 하반기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통일열차를 운행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및 분단 체험의 살아 있는 교육을 위해 새마을호 특실 기준의 교육전용 테마열차를 배치하는 등 통일열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북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광주시 주관… 5개 자치구 대상
### 기관표창·상사업비 1억원 확보

광주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2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지난해 세정업무 실적에서 △지방 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북구는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해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체납 징수기동반,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 받았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경기 침체로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모범 시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 광산구, 상생희망 나무심기 행사 개최

### 쌍암공원 등 시민 1000여명 참여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시민 1000여명과 함께 상생·희망 나무 1만여 그루를 심고, 기후변화 대응을 다짐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쌍암공원, 월전공원, 장덕공원, 월곡공원, 하남3지구 등 녹지 5개소에서 진행됐다. 공공, 민간, 기업, 단체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각자가 맡은 곳에서 이팝나무, 목련, 철쭉 등을 심었다. 식재한 나무는 1만여 주다. 광산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참여 나무심기, 생활권 도시숲 확충, 가로공간 정원조성, 민간주도 나무심기 등 '시민과 함께 나무심고 가꾸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 심은 1만여 그루의 나무는 아름다운 광산, 쾌적한 환경에 대한 많은 시민의 염원을 담은 탄소중립 광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미래세대에 온전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동구는 지난 21일 관광상품 확대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구 전담여행사 31곳, 관광 SNS서포터즈 16명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광주 동구 제공

# 동구, 관광 SNS 서포터즈 위촉식

###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 등 활성화

광주 동구는 지난 21일 관광상품 확대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구 전담여행사 31곳, 관광 SNS서포터즈 16명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기존 활동 중인 28곳의 동구 전담여행사와 올해 신규로 추가 선정된 3곳과 함께 야간·체류형 관광상품 판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아이디어 지속 발굴 등 동구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관광 SNS서포터즈로 최종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추억의 충장축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동구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취재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향후 수행 실적에 따라 소정의 고료가 지급되고, 우수활동가를 대상으로 연말 구청장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동구 방문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